

보육실태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홍미영¹⁾

우양호²⁾

요약

본 연구는 지역 보육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보육실태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지방차원의 보육현장을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보육수요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보육실태현황 및 보육시설 활용 수요,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맞벌이 부부의 보육,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보육시설 이용실태 측면, 지역 보육시설 수요측면, 보육정책측면, 맞벌이 보육수요자 측면, 보육만족의 영향요인 측면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발견과 이에 대한 논의들이 가능하였다.

주제어: 보육, 보육수요, 욕구조사, 보육정책, 지방정부

I. 서론

지난 2004년 6월 12일 참여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오던 보육업무를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보육공동

1)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전문위원

2)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체를 만들겠다는 보육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육의 주요 대상인 아이와 부모에게 모두 안전하고 신뢰로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는 보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안선희, 2005: 311; 한유미, 2005: 139; 박영아, 2006: 55).

지금까지 보육정책은 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상의하달(top-down)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보육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 수요현장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의 의견은 상당부분 외면되어 왔다(표갑수, 2004: 219; 이주연·이사라, 2006: 905).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에서는 보육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육실태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가 미비하여,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최목화, 2004: 393).³⁾

이는 정부가 아무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어떠한지, 어떠한 정책이 더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더 나아가 이는 보육정책이 여성과 관련이 높은 동시에 다른 사회보장정책과의 차별성이 높다는 정체성을 고려할 때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또한 불가피하다(Kagan & Cohen, 1996: 122-123). 환언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소위 공공보육서비스의 품질이나 수준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정부, 보육기관, 교사)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아동의 부모)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신혜섭·구미진, 2001: 55; 변용찬, 2002: 23; 최보가, 2005: 145; 한유미, 2005: 139; 이주연·이사라, 2006: 905)에서 보육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 보육서비스의 국가간 비교연구(한지혜, 2002; 김태홍·김난주, 2003; 한유미, 2005)나 보육실태 및 인식에 관한 전국적 차원의 횡단적 표본조사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3)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노동비율이 증가되는 반면, 출산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김양희 외, 2001). 더 나아가 우리사회는 이전부터 보육 등 가사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어왔고, 여성이 가사와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며, 때문에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는 선별주의에 입각한 이중성을 유지해 왔다(양옥승, 2002).

(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유희정, 1998; 서문희·이상현·임유경, 2000; 이명조, 2001; 한국교육개발원, 2002; 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서문희·이상현, 2002; 유희정, 2002; 한국여성연구소, 2003; 유희정·강정희, 2003, 여성가족부, 2006 등). 그런 이유로 각 지방정부의 유형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화된 정책적 결론 도출이 우선되어왔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역보육정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실제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한 지역차원에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와 욕구를 파악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첫째, 현재 지역차원의 보육시설에 대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용실태와 개선점을 검토한다. 둘째, 보육수요분석을 통하여 보육현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변수간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연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⁴⁾

II. 보육에 대한 욕구와 차원,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보육의 공공성과 정부의 정책변화

현재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는 대부분 양육이 부모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사회가 이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4) 이 때 보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을 통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보육정책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보육실태상의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더 초점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범위와 시점이 특정지역(부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제한적 설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서 부산은 출산율 전국 최저(전국 1.08명: 부산 0.88명)와 이에 간접적 영향을 받은 고령화 속도 전국 최고(65세 이상 인구가 7%를 가장 빨리 넘은 도시)를 기록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05;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2006).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핵심대안 중 하나가 보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용복·이소희, 2004: 112), 이러한 확실한 문제를 가진 연구대상의 선정은 연구결과의 실질적 효용성과 예언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는 제도적 차원으로 공공성을 다루고 있다(강달금·이영석, 2006: 186; 권미량·천희영, 2006: 31). 즉 공공성을 가진 보육이라 함은 최근에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을 대신하는 역할에서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김춘일, 2004: 85; 김순림, 2006: 88). 또한, 공보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육기회를 제공하거나(변용찬, 2002: 22-34), 아동보육의 문제를 가정과 사교육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상황(임유경, 2002: 58-68)으로 간주되어 왔다.⁵⁾

그러면 정부부문에서는 이러한 공공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알아보자. 최근 보육정책에 대한 거대한 변화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육업무 추진체계의 변화이다. 보육정책의 여성가족부 전면 이관은 그간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저소득층이나 취업여성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보육에 한정되는 데서 바뀌어, 이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는 행복권 보장,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건강한 가정 확립을 통하여 아동과 여성,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보편적·일반적인 차원의 보육을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부산광역시, 2006). 특히 2004년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제정 13년만의 개정과 2005년 여성가족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높이고 보편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관심을 반증한다. 즉 이러한 현상은 그간 보육이 여성 개인이나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이제는 부정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앞으로의 보육은 국가와 사회라는 공적 영역이 함께 분담하고 책임지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Vandell & Powers, 1983: 493).⁶⁾

5) 이러한 공보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된다(지성에·김영옥, 2003: 247-273). 첫째, 공보육의 재원확보로 보육을 원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적절한 수준의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셋째, 지역사회의 규모 및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영유아 가정의 소득수준에 맞게 인접 거주지역에서 편리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받는 것, 넷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로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항상 시켜 공보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요인으로는 영유아를 보는 관점과 보육대상의 변화, 정부의 책임 강화, 보육시설의 역할 강화, 부모의 참여 강화 등이 제안된다(유희정·강정희, 2003: 1-87).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제고와 공적영역으로의 보육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6) 기존 노동개념은 공적영역에서 재화나 화폐의 교환가치를 갖는 생산 중심적 노동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영역인 가정의 소위 돌봄노동은 진정한 노동으로서 평가받지 못해 왔다(양옥승, 2002; 유희정·강정희, 2003). 그러나 여성주의 관점에 의해 기존의 노동개념이 비판 받고 재해석됨으로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여성주의 관점에 의하면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육정책 기본방향의 변화이다. 보육업무가 여성 가족부로 이관된 후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여성가족부, 2006). 이는 아동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며,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이라는 말속엔 보육의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근래에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보육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최소한에 그치거나 지나치게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보육수요자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김태홍·김난주, 2003: 6-8; 박영아, 2006: 55-56).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서는 보육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추가되어 있다(최보가, 2005: 145; 이주연·이사라, 2006: 905-906).⁷⁾

2. 수요자 관점에서의 보육욕구

수요관점에서의 보육문제에 대한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여성의 역할변화의 딜레마이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내 여성노동비율은 증가한 반면, 가정 내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Honig, 1992: 12). 실제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대부분 육아 또는 가사노동 때문이다(여성가족부, 2005). 육아 및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된 성 역할 분업화의 현실 속에서 여성역할의 대부분은 인간적·사회적 가치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노동개념은 사적영역에서 주로 여성들이 무급으로 담당해 온 가사, 육아, 그리고 수발노동까지 포괄하여 재개념화하고 노동이 행해지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Whitebook, Howes & Deborah, 1989: 22-24).

- 7) 특히 시행령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은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에 의해 공급이 어려운 특수보육서비스 부문인 장애아 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야간, 휴일, 24시간 보육 등), 영아 보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육정보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보육사제를 시범운영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보육교사를 배출 관리하는 한편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06; 강달급·이영석, 2006: 185-210).

가사를 이유로 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은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취업률은 미미하게 상승하는 반면 출산기피 현상은 가속화 되는 특수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구의 경우 취업률이 상승하면 출산율은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근래에 취업률의 상승폭이 적거나 하락해도 출산율은 항상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용복·이소희, 2004: 105). 이러한 이유로 보육은 더 이상 여성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가족휴지기를 일정 정도 묵인하면서 여성을 유희노동력으로 여기는 관습적 사고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⁸⁾

두 번째 이슈는 근래까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양육을 공식적이거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보육은 공식적인 경제에서 유급노동으로서의 다른 노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치화되지 못했다(안선희, 2005: 315). 이 결과 양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미흡했고, 이러한 노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던 여성은 노동의 일원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육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인식변화가 일어났다(한국여성연구소, 2003). 게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양육노동을 담당하던 여성인력은 생산성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한유미, 2005: 139). 결국 양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 우수한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수요자의 열망은 더욱 절실해 졌다.

세 번째 이슈는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남성에게 보육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김양희 외, 2001). 즉 최근 청·장년층 부부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육문제 또한 여성만의 일이나 문제로 여기지 않으며 남성들 자신의 주요한 관심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의식 속에는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우지 않는 만큼 남성도 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부양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또 다른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스러운 가정의 의식은 탈피하고자 하나, 반대로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은 증가 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정과 가족, 그리고 보육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가

8) 외국에서도 다양한 직장형태를 가진 수요자들이 증가할수록 자신들의 생활패턴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충족감을 모두 보육시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Whitebook, Howes & Deborah, 1989: 20). 즉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 보육이 더 이상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급 가능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과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케 하였다.

치관과 태도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⁹⁾

3. 보육욕구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보육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에 대한 욕구차원 혹은 자녀의 보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과 안전,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 사회적 상호작용, 부모와의 협력 관계라는 견해(Endsley & Bradbard, 1981: 55-61; Kagan & Cohen, 1996: 122-127), 일과 계획, 교육과정,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영양·건강·안전, 운영관리, 교직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설에 대한 각종 평가활동이라는 견해(Corsini, Wisensael & Caruso, 1988: 18-20; Mauser, 1993: 55-60), 집단의 규모, 성인 대 유아의 비율,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적극적인 부모의 참여정도 등이라는 견해(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537-541; Honig, 1992: 12-15; Scarr, Eisenberg & Deckard, 1994: 145-150), 보육구조상의 질적인 문제와 운영과정상의 문제라는 견해(Howes, 1992: 31-40), 보육욕구는 일과 계획, 교육과정,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영양·건강·안전, 운영관리, 교직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평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견해(Bushouse, 1999: 55; 유희정, 1998: 11-20; 이명조, 2001: 290-292; 유희정·강정희, 2002: 25-30)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보육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교과과정, 교사-가정상호작용, 교사자격 및 발달, 운영, 교사편제, 물리적 환경, 건강 및 안전, 영양 및 급식, 평가 등 10개 영역 84개의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NAEYC, 2006).¹⁰⁾

9) 김양희 외(2001: 70-120)에 따르면 젊은 고학력의 남성일수록 남성의 생계부양규범에 대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20대 남성의 52.2%가 반대했으며(50대는 21.5%), ‘남자들은 바깥일을 하므로 자녀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20대 남성의 87.9%가 반대했다.

10) 현재 한국의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부모의 보육에 대한 욕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6) 상에서 보호,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으로 비교적 단순화되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연구소(2003: 1-150)의 경우 보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과 서비스의 품질은 시설 운영, 보육인력, 교육과정, 보육환경, 건강·영양·안전, 부모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광역시(2005)의 보육시설인준평가 지침에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종사자, 교육과정, 영양·건강·안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요소가 보육의 질과 부모의 보육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

하지만, 이상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보육의 주관적 수요와 욕구에 대한 정의 및 연구의 다양성은 보육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모들의 평가차원을 단순화시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서문희·이상현, 2002: 63-64).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보육의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타당성 높은 연구도구를 제작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보육의 실정에 맞는 보육욕구모형과 측정도구를 구성해보기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이용실태에 관한 공통적인 변수가 도출된다는 점이었다. 즉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이 서로의 장점을 도입하고 있고(강달금·이영석, 2006), 보육현장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의 평가척도는 보육시설과 서비스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이에 보육시설 이용실태의 공통적인 측정변수는 시설과 프로그램 유형, 시설이용이유와 시간, 비용수준, 선택기준, 정보획득경로, 기타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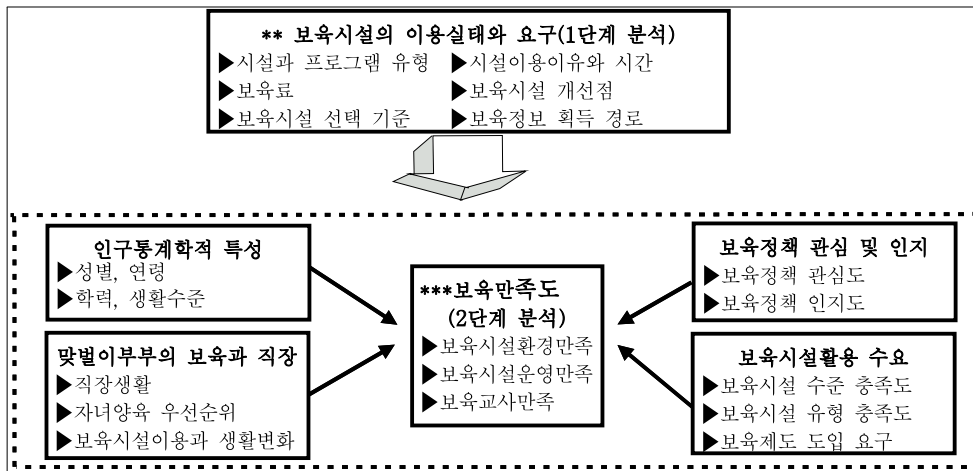
한편, 보육의 품질과 만족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보육시설수요에 대한 요구와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라는 변수의 인과관계로 구성된다(안지연, 1997: 1-14; 신혜섭·구미진, 2001: 55-70; 최목화, 2004: 393-405; 최보가, 2005: 145-159; 이주연·이사라, 2006: 905-917; 최성용·권이명, 2006: 48-69). 특히 인과관계를 따져 볼 때, 가장 최근에는 보육시설의 유형과 수준, 새로운 보육체도의 요구가 부모의 전반적인 보육만족과 높은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98-119; 서문희·이상현, 2002: 1-55; 한유미, 2005: 139-149; 박영아, 2006: 55-69). 또한, 외국문헌을 중심으로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요인도 보육만족과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도 신빙성이 높게 보여진다(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Corsini, Wisensael & Caruso, 1988; Whitebook, Howes & Phillips, 1989; NAEYC, 2006; 신혜섭·구미진, 2001; 한유미, 2005). 연구마다의 일관된 경향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모의 연령, 학력,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시설의 보육에 대한 만족은 높아지며, 여성보다는 대체로 남성응답자가 자식의 보육에 대해 관대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평가 이외에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보육욕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최목화, 2004: 393-405; 최보가, 2005: 145-159; 이주연·이사라, 2006: 905-917;

역시·도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보육시설 인준평가를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최성용·권이명, 2006: 48-69). 즉 정부의 노력과 공공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정책차원의 인지는 곧 민간부문에까지 보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파급시키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elman & Pence, 1987: 68-82; Golberg, 1999: 190-199; Bushouse, 1999: 1-143). 따라서, 보육정책의 인지는 곧 보육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보육과 직장생활 병행문제도 보육의 만족과 상관성이 높다는 주장(채옥희·정은미, 2004; 한유미, 2005; 박영아, 2006; 최성용·권이명, 2006)이 실증적으로 규명되면서 현실적인 설득력도 얻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일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일찍부터 외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엄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보육에 대한 만족은 전업주부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Whitebook, Howes & Phillips, 1989: 1-55; Mauser, 1993: 55-77; 표갑수, 2004: 219-249). 우리나라에서 최근 보육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표본에서 한결같이 맞벌이 부부의 응답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보육에 대한 만족은 곧 그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NAEYC, 2006; 박영아, 2006: 55-69; 이주연·이사라, 2006: 905-917; 최성용·권이명, 2006: 48-69). 즉 직장가 가정의 양립갈등 상황에서 보육이 가지는 의미와 보육결과는 전반적인 보육만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보육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에는 보육정책의 차원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맞벌이 문제도 연구변수에 포함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보육욕구의 차원과 만족의 변수를 사용하여 지역의 보육실태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단계는 크게 2개의 부분이다. 하나는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보육수요의 3가지 차원과 보육만족을 측정하고, 이론적으로 추정된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의 의의와 진행방법

보육욕구조사는 특정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혹은 정책수혜자의 욕구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Corsini, Wisensael & Caruso, 1988: 18; Mauser, 1993: 55), 보육활동 및 정책의 효과 내지 성과측정의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어져 왔다(Scarr, Eisenberg & Deckard, 1994: 145-146). 또한, 이는 보육정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정책 자원할당(policy resource allocation), 보육정책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program planning and development), 정책 집행구조 및 체계변화, 특정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데이터 구축 등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정책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다(Mauser, 1993: 56-57). 국내에서는 보육정책의 욕구조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예를 들면 보육수요자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상태가 요구되는 조건을 평가하거나 추측하는 행위, 보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이를 지역차원의 정책에 연결시키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의 보육욕구와 경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research)하고 계획하는 활동(planning activity)이라는 점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육욕구조사는 보육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기관조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할당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조사과정이다.

한편, 여기서의 조사방법은 양적 관점에서 일반집단조사(general population survey), 표적집단조사(target population survey), 핵심정보제공자조사(key informant survey) 중에서 표적집단조사가 사용되었다. 이는 보육문제와 정부의 보육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표적집단이라 하면 정책수혜요건(소득, 연령, 성별)의 변수나 지리적 변수(시, 군, 구)로 유형화된 집단이다. 이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표본편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조사의 질적 관점에서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집중성(convergence)을 고려했다(Harlow & Turner, 1993: 193). 이는 보육에서 주어진 내용이 욕구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시기에 함께 투입함을 강조하는 개념들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의 보육욕구의 조사 설계단계에서 피라미드식 3단계 욕구조사모형(Witkin & Altschuld, 1995)을 이용하였다. 이는 조사의 한 시점이라는 횡단적 성격을 극복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차적·행정자료에서부터 시작하여, 2단계에서는 그 다음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료의 순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1-2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인 욕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작위표본추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표적집단조사를 한다(Harlow & Turner, 1993: 194-196). 이에 이 연구의 조사는 문헌자료, 지역의 보육기관데이터 및 행정자료, 그리고 보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마지막 조사단계이다.

2. 측정도구와 표본구성

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은 최근까지의 보육실태 및 보육서비스 품질, 그리고 보육만족에 관한 실증연구(안지연, 1997: 1-14; 신혜섭·구미진, 2001: 55-70; 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98-119; 최목화, 2004: 393-405; 한유미, 2005: 139-149; 최보가, 2005: 145-159; 이주연·이사라, 2006: 905-917; 박영아, 2006: 55-69; 최성용·권이명, 2006: 48-69)의 항목들을 취합한 후 3차례 전문가 토의(유사성 및 내용타당성 평가)를 거쳐 선별되었다. 그 이유는 유사한 기존연구들의 평가문항이 너무 많음으

로 인해 보다 간소한 평가척도를 사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문헌(Goelman & Pence, 1987; Golberg, 1999; Bushouse, 1999)은 영어에 능통한 보육전문가 2인의 개별번역(blind translation)에 이은 다중병행해석(parallel interpretation)으로 평가항목을 추출하여 의견일치가 된 항목만 채택하였다. 맞벌이 부부, 보육정책, 보육만족 변수에 5항목이 추가되었다.

최종 설문지의 문항구성(총 50문항)을 보면 영유아 학부모의 특성(5), 보육시설 이용실태(6), 보육시설 활용수요(3), 보육지원정책(2), 맞벌이 부부의 직장과 가정(11), 보육만족도(12)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목척도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보육시설의 이용자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보육수요자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했다. Cronbach's Alpha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해 본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계수가 최소 0.7092에서 최대 0.9143 사이로 나타났다.

<표 1> 지역 보육수요자의 욕구측정도구와 신뢰도(N=652)

차원	변수	측정지표	Alpha	차원	변수	측정지표	Alpha
일반특성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생활수준	명목척도	보육수요	보육시설수준	보육시설 양적수준에 대한 총족정도 보육시설 질적수준에 대한 총족정도	.7092
	보육시설 이용실태	·이용시간 ·보육료 ·선택 기준 ·개선점 ·정보획득경로			유형별총족도	공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영유아 혼합시설, 시간연장형시설, 민간보육시설, 장애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정도	
보육만족	보육시설내·외부 환경	보육시설 청결유지, 안전시설구비 보육아동의 생활공간 면적의 적정성 등하원 차량운행 안전, 정서함양에 적합한 시설설비	.8362		제도도입요구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요구정도 보육교사 국가공인자격제 도입 요구정도 아동보육수당제 도입 요구정도 가정보육사모제 도입 요구정도	
	보육시설 운영관리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건강영양관리 교사대 보육아 비율 부모 건의사항 반영도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주변평판	.9143	맞벌이 부부의 보육과 직장	직장생활저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직장생활 저해정도 가사일로 인한 직장생활 저해정도	.7318
	보육교사 자질	보유시설장에 대한 신뢰 보육교사의 보육아에 대한 애정과 관심	.7266		우선순위	직장선택시 우선기준 자녀양육과 직장문제의 우선 해결순위	.7590
보육정책	정책관심도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7654	보육후부모생활변화	직장에서 작업능률, 직장동료관계 향상정도, 지각/결근 등 감소, 직장포기 의사 감소 정도 보육문제로 인한 부부싸움 감소, 시댁·친정 등 도움요청 감소, 자녀 정서안정	.8155	
	정책인지도	보육정책 추진에 대한 인지정도					

이에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부산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보육시설 중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영아전담시설을 비롯하여 야간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시설 및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 운영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을 전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16개의 구·군 당 보육시설유형별로 각각 4곳씩의 어린이집¹¹⁾ - 국공립(16곳), 법인(16곳), 민간(17곳), 가정놀이방(15곳) - 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균등할당표출(quota sampling)에 의하여 조사하였다(표 2 참조). 통상적인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역별 소재의 편차가 있고 숫자가 많아 전수조사 대신 확률통계추출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각 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과 함께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총 1000부가 배포되어 684개의 표본이 표집되었고, 유효표본은 652개로 나타났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10월~12월이었다.¹²⁾

〈표 2〉 부산광역시 보육시설 일반현황과 할당표본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수	1,455	81	963	106	63	794	14	397	
할당표본수 (16개 구·군)	110	16	64	16	16	32	14 (전수)	16	
아동수	정 원	67,875	8,398	52,156	10,392	3,353	38,411	748	6,573
	현 원	55,949	7,044	44,014	9,095	2,527	32,392	423	4,468
	이용률	82%	84%	84%	88%	75%	84%	57%	68%

자료: 부산광역시 보육정책과 통계자료(2006) 재구성.

11) 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12) 표본의 구체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비율은 90.3%이고, 아버지가 응답한 비율은 7.7%이며, 친인척이 응답한 경우는 1.4% 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3.0%, 20대가 13.5%를 차지했다. 통상 어린이집 아동이 미취학생인 관계로 40대(6.6%)와 50대 이상(0.9%)의 응답율은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가 40.3%,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가 25.8%,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도 13.8%로 나타났다. 학력별 특성으로는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최종 학력이 대졸인 비율이 49.5%로 가장 많았고, 고졸인 경우 39.0%, 대학원 졸업이 4.1%의 분포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졸인 경우는 41.6%, 대학원졸의 경우 2.0%의 분포를 보였다.

IV. 연구결과

1. 현재의 보육실태 분석

첫째, 보육시설 이용 응답자 중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9시를 전후로 하여 보육시설에 등원시켰다가 오후 4-5시경에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만 맡긴다든가 혹은 오후에만 맡기기도 하며, 또 특수한 경우에는 어머니 아빠가 퇴근하는 저녁 7시 전후까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었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여 분석해 보면, 최소 180분(3시간)에서 최대 780분(13시간)까지 계산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450분(약 7시간 30분)정도로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부산지역 보육시설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한달 평균 보육료는 155,272원으로 나타났다. 보육료는 최소 무상(0원)에서 최대 800,000원까지로 나타났는데, 최소값인 경우는 보육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최대값의 경우는 기본 보육료에 각종 보조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책정한 금액이다. 그리고 각 시설유형에 따라 또는 아동연령에 따라 보육료는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료에 대한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현 생활수준에 비추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3%,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로 적정수준 이상인 응답이 70.6%를 나타내었다.¹³⁾ 이에 앞서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27.8%)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어느 정도의 보육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최소 무상보육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평균 희망 보육료는 115,062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는 173,000원(민간시설 3세 이상)-361,000원(가정시설 2세 미만)인데(여성가족부, 2006), 희망 보육료의 최대값이 최대 3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므로 상당수 부모들은 현행 정부의 표준보육료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가구당 월평균 수입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미만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300-400만원 미만에서 적당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에서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역시 소득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부담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달 평균 보육시간과 보육료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현재 이용 시간	180.00	780.00	447.5622	103.1936
희망 시간	170	750	493.73	137.17
현재 보육료	0	800,000	155,272.01	83,256.80
희망 보육료	0	300,000	115,062.50	54,732.02

셋째,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응답자에게 우선순위별로 가중치를 주게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순위는 아이의 안전과 양질의 식사, 2순위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3순위는 원장과 교사의 평판이었다. 이 외에는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저렴한 비용 때문에>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 주어서>영아(0-2세)를 받아주어서>장애아동을 받아주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무엇이 아니었다. 아이가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중요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표 4〉 보육시설 선택기준

단위: 명, %

보육시설 선택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보육시설 선택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아이의 안전과 양질의 식사	260	146	118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줌	12	26	49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64	104	125	영아(0~2세)를 받아주어서	4	6	9		
저렴한 비용	21	53	82	장애아를 받아주어서	8	-	2		
원장과 교사의 평판이 좋아서	109	138	140	무응답	7	-	-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167	169	106	합계	652	652	652		

넷째,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화(22.4%)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보육 및 교육비용의 절감(18.5%), 시설설비 개선(18.3%), 영양관리 개선(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0-2세 미만은 1 대 5, 2세는 1 대 7, 3세 이상은 1 대 20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요자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가장 많은 점은 부모의 영아보육 이상기준이 실제와 다르거나, 민간이나 소규모보육시설에서 교사 대 영유아의 적정비율이 실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¹⁴⁾

〈표 5〉 보육시설 개선요구사항

단위: 명, %

보육시설 개선사항	빈도(명)	%	보육시설 개선사항	빈도(명)	%
보육,교육비용 절감	100	18.5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적정화	121	22.4
급,간식 등 영양관리 개선	73	13.5	운영시간의 다양화	61	11.3
안전 및 차량운행 관리개선	47	8.7	시설설비 개선	99	18.3
프로그램 개선	40	7.4	합계	541	100.0

2.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연구대상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의 질적 확대와 양적 확대에 대한 정확한 요구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장의 경우 현재의 보육시설이 너무 많아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많다. 반면, 보육시

14) “민간보육시설은 유치원처럼 보육료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매달 아동 숫자도 일정하지 않아서 달마다 재정여건이 다릅니다. 유아의 수에 꼭 맞게 교사를 채용했다면 유아가 줄었다고 해서 교사를 내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요?(민간보육시설장 K씨, 2006. 12).” “유치원은 방학이라도 다니든 다니지 않든 회비를 내는데 어린이집은 그러한 인식이 없어요. 학부모들은 필요할 때만 보낸다는 인식이 많지요. 방학이라 몇 일만 다니고 회비를 반납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민간보육시설장 J씨, 2006. 12).”

설 이용자들은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¹⁵⁾

첫째,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보육시설 확충필요성에 대하여 찬성 42.2%, 유지 26.5%, 반대 29.0%다. 이는 보육시설의 부족을 체감하고 양적 확충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약하다. 그러나 보육시설장들과의 인터뷰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보육시설장들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수요자들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40%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41.7%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보육시설의 양적 요구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동시적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보육시설 수준향상에 대한 요구도

단위: 명, %

변수	구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양적 충족도		103(15.8)	172(26.4)	173(26.5)	119(18.3)	70(10.7)	15(2.3)	652(100.0)
질적 충족도		34(5.2)	238(36.5)	280(42.9)	69(10.6)	21(3.2)	10(1.5)	652(100.0)

둘째, 유형별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수요자 요구가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별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의 국공립·법인 등 공보육시설의 확충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76.2%가 ‘그렇다’고 동의하여 공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의견(48.4%)과도 잘 대조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영아전담보육시설(0~2세)의 확충이 더

15) “보육시설의 수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의 확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육시설들이 너무 난립해 있어요. 문제는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늘리더라도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더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던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놀이방, 영아전담시설장 K씨, 2006. 12).” “시설 수는 양적으로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시설이나 일하는 여성의 직장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줄 서 있습니다.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태반이죠.(직장보육시설 교사 L씨, 2006. 12).”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70.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장들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¹⁶⁾

또한, 영유아혼합보육시설(어린이+영아) 확충의 필요성은 65.2%가 공감했고, 시간연장형(야간, 주말, 휴일 등)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5.3%, 장애아보육시설 확충은 68.4%가 공감한 부분도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영아전담이든 영유아혼합시설이든 영아를 맡아서 보육해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에 영아전담 혹은 영유아혼합보육시설들이 보육수요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보육아동이 없어서 영아전담반이나 시간연장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시설장의 의견과 배치된다. 더불어 영아전담시설이 많은데 왜 이용하지 않느냐는 지역보육담당 공무원의 말과도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결과이므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의견(75.2%)의 경우 아직까지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곳이 지역 전반적으로 적으며, 지역적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육수요자들의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지만 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히 고려될 내용이다.

16) “영아전담반을 운영하려면 지정된 시설기준, 일정 수의 영아가 있어야 해요. 2세 미만 영아 대 교사 비율은 5:1로 적어도 영아 5명은 되어야 교사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죠. 문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크고 유명한 시설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어 작은 놀이방은 영아전담반 운영이 무척 어려워요(영아전담시설장 K씨, 2006. 12).” 이와 같이 보육수요자와 보육시설장이 상반되는 입장은 두 측면으로 해석된다. 먼저 보육시설장들은 영아반 설치의 권고사항이고 교사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설치 후 굳이 원생모집에 애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영아반 운영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부모로 하여금 영아반 부재의 인식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보육수요자와 시설장들과의 인식 차이에 관한 것이다. 학부모는 영아를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 맡기고 싶은 반면,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시설의 숫자에 더 관심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반면, 시설장들은 지금도 시설이 많은데 왜 더 필요하냐고 하는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유형별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단위: 명, %

구분 변수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공보육시설확충	279(42.8)	218(33.4)	90(13.8)	28(4.3)	22(3.4)	15(2.3)	652(100.0)
영아전담시설확충	257(39.4)	201(30.8)	123(18.9)	32(4.9)	16(2.5)	23(3.5)	652(100.0)
영유아혼합시설확충	217(33.3)	208(31.9)	145(22.2)	44(6.7)	12(1.8)	26(4.0)	652(100.0)
시간연장형시설확충	219(33.6)	207(31.7)	136(20.9)	56(8.6)	19(2.9)	15(2.3)	652(100.0)
민간보육시설확충	136(20.9)	179(27.5)	200(30.7)	64(9.8)	50(7.7)	23(3.5)	652(100.0)
장애아보육시설확충	222(34.0)	224(34.4)	138(21.2)	25(3.8)	14(2.1)	29(4.4)	652(100.0)
직장보육시설확충	291(44.6)	206(31.6)	99(15.2)	21(3.2)	15(2.3)	20(3.1)	652(100.0)

셋째, 새로운 보육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 부문에서 현행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80.7%가, 국가공인자격시험제는 80.1%가, 아동보육수당제는 75.3%가, 가정보육모제도 도입은 41.4%가 찬성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적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해 준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다. 또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며 보육비용이 저소득 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가정보육모제도의 도입은 아직은 부모들의 호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보육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단위: 명, %

구분 변수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보육시설평가인증제 필요	312(47.9)	214(32.8)	96(14.7)	9(1.4)	7(1.1)	14(2.1)	652(100.0)
국가공인자격시험제 필요	262(40.2)	260(39.9)	90(13.8)	15(2.3)	12(1.8)	13(2.0)	652(100.0)
아동보육수당제 필요	305(46.8)	186(28.5)	99(15.2)	22(3.4)	24(3.7)	16(2.5)	652(100.0)
가정보육모제 필요	110(16.9)	160(24.5)	243(37.3)	76(11.7)	45(6.9)	18(2.8)	652(100.0)

3. 보육정책의 인지와 관심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육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행 주요 보육정책, 즉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 추진,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육아휴직·출산휴가제도, 보육지원기관(육아지원센터, 보육개발원) 신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 추진은 74.8%,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제도는 85.1%, 육아휴직·출산휴가제도는 70.1%, 보육지원기관은 33.5%의 인지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관심 있는 집단은 전체의 71.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보육수요자 본인에게 직접적일수록 더욱 인지정도가 높고, 반대로 간접적인 지원이나 기관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수요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경우 나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판단하며, 직접적인 정책적 수혜에 대해서 정책의 효과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육정책이 주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과 정책신설 보다 기존의 정책기능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9〉 보육관련정책에 대한 인지와 관심

단위: 명, %

구분 변수	잘 알고 있음 (관심 많음)	조금 알고 있음 (조금 많음)	들어본 적 있음(보통)	잘 모름 (적음)	전혀 모름 (관심 없음)	무응답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	201(30.8)	287(44.0)	100(15.3)	50(7.7)	6(0.9)	8(1.2)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305(46.8)	250(38.3)	75(11.5)	12(1.8)	1(0.2)	9(1.4)
육아휴직·출산휴가제도	215(33.0)	242(37.1)	132(20.2)	43(6.6)	6(0.9)	14(2.1)
지원기관(육아지원센터, 보육개발원)	44(6.7)	175(26.8)	191(29.3)	192(29.4)	31(4.8)	19(2.9)
보육정책 관심도	199(30.5)	269(41.3)	144(22.1)	18(2.8)	6(0.9)	16(2.5)

4. 맞벌이 부부의 보육과 직장에 대한 인식

보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 후 직장 및 가정생활에 어떤 변화를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의 양성 평등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맞벌이 부부의 응답표본은 총 319명이었다.

먼저, 맞벌이 부부에 있어 보육과 직장의 관계를 살펴보자.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는가, 가사가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각각 응답자의 67.4%, 58.0%가 찬성하여 자녀양육이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양립에서 직장선택기준으로 자녀양육을 고려하는 정도에 대해서 86.2%가 그렇다고 했으며, 직장문제와 자녀양육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응답이 87.2%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에게 직장문제와 자녀양육문제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일 경우 자녀양육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높아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일정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후 직장생활에서 작업능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81.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안 보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74.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이용으로 지각, 결근 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74.9%가 줄었다고 긍정했으며,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75.2%가 많은 편으로 응답하여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갈등으로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직장에서의 작업능률, 인간관계, 업무집중, 직장포기 고려 등의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여성을 사회의 정당한 인적자원으로 본다면 정부는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보육과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에서는 부부싸움 감소 정도, 시댁 및 친정의 도움 요청 감소, 아이의 정서적 안정, 자녀양육 시 직장선택기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우선순위 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 후 보육문제로 인한 부부싸움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68.2%가 줄었다고 답하여 자녀의 보육문제가 부부간에 심한 스트레스 및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보육문제의 해소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의 화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74.3%가 시댁이나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줄었고, 77.3%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보육시설 이용 후 부모는 물론 보육아동인 자녀에게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맞벌이 부부 응답결과의 종합

단위: 명, %

구분 변수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자녀양육으로 인한 저해	85(26.6)	130(40.8)	53(16.6)	28(8.8)	13(4.1)	10(3.1)	319(100.0)
가사일로 인한 저해	65(20.4)	120(37.6)	79(24.8)	29(9.1)	14(4.4)	12(3.8)	319(100.0)
양육이 직장선택기준	150(47.0)	125(39.2)	28(8.8)	4(1.3)	1(0.7)	11(3.5)	319(100.0)
양육이 직장생활에 우선함	162(50.8)	116(36.4)	22(6.9)	10(3.1)	1(0.3)	8(2.5)	319(100.0)
작업능력 향상	98(30.7)	162(50.8)	50(15.7)	5(1.6)	1(0.3)	3(0.9)	319(100.0)
직장동료와의 관계 향상	79(24.8)	157(49.2)	63(19.7)	8(2.5)	2(0.6)	10(3.1)	319(100.0)
지각·결근감소	89(27.9)	150(47.0)	57(17.9)	9(2.8)	4(1.3)	10(3.1)	319(100.0)
직장포기 의사 감소	104(32.6)	136(42.6)	47(14.7)	18(5.6)	1(0.3)	13(4.1)	319(100.0)
보육관련 부부싸움 감소	88(27.1)	131(41.1)	69(21.6)	12(3.8)	3(0.9)	16(5.0)	319(100.0)
시댁·친정 도움 요청감소	104(32.6)	133(41.7)	51(16.0)	12(3.8)	10(3.1)	9(2.8)	319(100.0)
자녀의 정서 안정	74(23.1)	173(54.2)	58(18.2)	8(2.5)	0(0.0)	6(1.9)	319(100.0)

끝으로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부담, 가

사에 대한 책임부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무응답을 제외하면, 자녀양육은 51.1%가 엄마가 책임진다고 답하였으며, 부부공동이 41.4%, 아빠라고 응답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가사활동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는 부인이 69.0%, 부부공동이 29.5%, 남편은 1.2%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플 때 응급대처자는 50.0%가 엄마, 35%가 아빠, 부부공동이 13%로 나타났다.¹⁷⁾

맞벌이 부부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남편은 혹은 아빠는 자녀양육이나 가사에 있어서는 협조자나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 대부분의 책임은 여성인 부인 혹은 엄마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여성은 늘 자녀양육과 가사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직업을 가진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

5. 보육에 대한 만족도

이상의 보육실태 요인과 욕구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준다. 즉 지금까지의 보육실태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보육만족은 높은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만약 실제 그러하다면 만족도 개선의 원인을 앞선 욕구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러하지 않다면 보육실태에 대한 욕구와 만족은 서로 관련성이 적으며 별개의 차원일 수 있음을 새로이 증명하는 것이 된다.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육시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교실, 놀이터 면적이 보육아동들이 생활하기에 적정하며 불편하지 않은지, 등/하원시 차량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육시설 설비가 아동의 정서함양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보육시설의 청결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88.0%에 이르고 있

17)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엄마라는 사실도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는 이중의 부담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직장생활과 무관하게 또 여성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즉 여성은 직장생활 및 여타 경제활동을 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범주화된 가사영역은 여성의 몫으로 분담되며, 곧 여성의 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직장생활 및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경력단절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 보육시설의 청결은 잘 유지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73.0%에 달하는 수준이었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16.7%의 수요자들까지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안전시설의 관리와 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실과 놀이터 등 공간과 생활면적에 대한 만족은 청결유지나 안전시설 등에 대한 만족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 유아의 공간면적 대비 유아 수를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준수해 나갈 것인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차량안전운행도 대체로 만족한 수준이지만, 차량운행의 안전은 학부모라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즉 이는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소수이긴 하지만 불만을 나타내는 응답자들까지도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운행관리가 요구된다. 영유아의 정서함양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71.0%로 나타나 보육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변수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보육시설 청결유지	231(35.4)	343(52.6)	64(9.8)	5(.8)	0	9(1.4)	652(100.0)
안전시설구비	172(26.4)	317(4.6)	100(15.3)	9(1.4)	0	54(6.3)	652(100.0)
보육아동 생활면적	114(17.5)	219(33.6)	214(32.8)	85(13.0)	11(1.7)	9(1.4)	652(100.0)
등하원차량운행	251(38.5)	286(43.9)	66(10.1)	8(1.2)	7(1.1)	34(5.2)	652(100.0)
정서함양 시설설비	123(18.9)	340(52.1)	157(24.1)	14(2.1)	1(0.2)	17(2.6)	652(100.0)

둘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은 보육시설의 계절별, 월별, 주별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보육아동의 급·간식을 통한 건강 및 영양관리, 학급당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성, 학부모의 건의사항 반영정도, 보육시설에 대한 주변평판이 좋은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결과는 90.8%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보육아동의 건강 및 영양관리 면에서는 충분한 양의 급식과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에 83.8%가 동의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과 건

강관리부문에 대한 만족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사 대 보육아동의 비율에 대해서는 학급당 보육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58.4%에 그쳐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육시설의 개선점에서 나타난 반응과 유사한 결과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그 반면에 보육교사의 적정비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¹⁸⁾ 부모의 건의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72.3%가 잘 된다고 답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자신들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용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주변평판에 대해 질문한 결과 8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부모가 자녀를 맡기는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변수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290(44.5)	302(46.3)	52(8.0)	1(0.2)	1(0.2)	6(0.9)	652(100.0)
건강영양관리	234(35.9)	312(47.9)	87(13.3)	7(1.1)	3(0.5)	9(1.4)	652(100.0)
교사/아동적정 비율	116(17.8)	265(40.6)	170(26.1)	61(9.4)	27(4.1)	13(2.0)	652(100.0)
부모건의사항 반영도	136(20.9)	335(51.4)	134(20.6)	20(3.1)	2(0.3)	25(3.8)	652(100.0)
시설에 대한 평판	233(35.7)	322(49.4)	84(12.9)	3(0.5)	1(0.2)	9(1.4)	652(100.0)

18)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교사 한 사람이 영유아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건강과 발육, 학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도 적정 인원의 보육교사는 반드시 충원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종일제 운영이라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돌봄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한국여성연구소, 2003)는 아동에게 보육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 부문은 보육시설장에 대한 신뢰와 보육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 아낌의 정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원장의 신뢰도에 대한 만족 수준을 분석한 결과 91.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보육시설장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아껴주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93.7%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보육시설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응답이 매우 긍정적인 이유는 조사방법상 설문조사가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수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자녀의安危를 염두에 두고 나온 의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⁹⁾ 더욱이 학부모들은 자신이 선택한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나 원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강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요구하고 있었다.²⁰⁾ 이는 앞선 보육제도수요 분석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시험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보육수요자의 응답이 80%를 상회하는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표 13〉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변수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원장에 대한 신뢰	319(48.9)	278(42.6)	45(6.9)	0	1(0.2)	9(1.4)	652(100.0)
교사의 애정·관심	353(54.1)	258(39.6)	34(5.2)	3(0.5)	0	4(0.6)	652(100.0)

19) “평소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을 통해 시설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받게 되면 나의 속마음과는 무관하게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급적 좋은 평가를 해요. 특히 교사나 원장과 관련된 질문은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지요(엄마 K씨, 2006. 12).”

20) “기본적으로 내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신뢰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객관적으로 믿음이 가는 자격요건들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아빠 P씨, 2006. 12).”

6. 보육만족도의 영향요인

부모의 보육수요와 맞벌이부부의 보육문제, 보육정책이 보육만족과 가지는 인과관계는 곧 보육욕구 하위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늠해줄 수 있다. 이에 전체 보육욕구 구성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우선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독립변수가 보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결과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458로 보육만족의 약 46%가 통계적으로 설명되었다.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표준화계수 (β 값)를 보면 보육시설수준($\beta=.410$), 맞벌이부부의 직장생활($\beta=.248$), 보육시설유형($\beta=.290$), 맞벌이부부의 보육시설이용($\beta=.181$)의 순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정부는 이상의 5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보육수요자의 만족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 14> 보육만족도의 영향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값	유의확률	
		B	Sb				
(상수)		2.622	1.094		2.398	.019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6.424E-02	.239	-.021	-.269	.789	
	연령*	7.206E-02	.164	.058	.440	.661	
	학력*	-.336	.213	-.152	-1.581	.118	
	생활수준*	-8.281E-02	.216	-.035	-.384	.702	
보육 욕구	보육 수요	보육시설수준	.429	.131	.410	6.782	.000
		보육시설유형	.329	.120	.299	3.187	.009
		보육제도	.184	.153	.157	1.199	.234
	맞벌이부	맞벌이직장생활	.443	.096	.248	3.153	.004
		맞벌이자녀양육	3.675E-02	.167	.034	.220	.826
		맞벌이시설이용	.248	.080	.181	1.952	.048
	보육 정책	보육정책인지	.120	.095	.102	1.264	.210
		보육정책관심	6.033E-03	.104	.006	.058	.954
		R ² = .497, Adjusted R ² =.458,		F=140.286			

주: * 표시는 가변수로 처리된 변수임.

먼저 보육시설수준에서 자녀의 안정과 양질의 식사와 좋은 시설 및 프로그램, 원장과 교사의 평판 등의 요소가 보육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모

들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을 원하지만 우수한 원장과 보육교사와 안전하고 좋은 시설과 양질의 식사와 프로그램이 담보된다면 보육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그 보육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는 보육수요자들이 무조건 저렴하고 획일적인 수준의 보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직장생활과 보육시설 이용 변수는 보육과 가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의 경제활동과 보육만족은 담보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보육과 가사의 부분담 및 사회적 책무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보육시설유형 변수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아져서 그 시설을 자신의 자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원하는 동시에 천편일률적인 보육시설의 확충이 아닌 자신들의 다양한 직업활동과 삶의 양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보육시설이 보육만족에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V. 종합적 논의와 결론

보육실태와 보육정책에 대한 지역 보육수요자들의 욕구를 분석,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차원의 보육실태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로 결론에 대신한다. 크게 보면 다소 일반적인 느낌의 지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결과에서 재확인됨으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더욱이 공공부문에서 이의 해결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 참여정부가 표방한 수요자 중심 보육패러다임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지역 보육시설 이용 실태 측면에서는 크게 시간과 요금 부분이 문제였다. 우선 공보육 시설 중심의 탄력적인 보육시간대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에 의해 공급이 어려운 특수보육서비스 부문인 시간연장형 보육(야간, 휴일, 24시간 보육 등)은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시간은 평균 13시간이며, 희망하는 보육운영시간은 평균 12시간 30분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제 보육수요자들이 1일 8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용패턴에 맞는 보육시설을 선정할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불만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시간연

장보육이나 정규보육시간 이상의 보육을 원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보육수요자들의 경우 보육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불만족을 나타낼 수도 있다. 향후 부모들의 생활양식과 노동시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명히 더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보육시간대의 운영방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요금부문에서는 주민에 대한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단가가 다시 산정 되어야 한다. 정부지원단가나 현행 획일화된 표준보육단가가 아니라 각 지역의 지방정부에 의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실화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보육료 지원체계도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현행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간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체계에서, 앞선 지역맞춤형 표준보육단가를 토대로 모든 보육시설이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보육은 교육차원이 아니라 지역복지기능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²¹⁾

둘째, 지역 보육시설 수요측면의 결과에서도 두 가지 내용이 지적된다. 먼저 교사의 적정 비율 유지와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보육수요자는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사 대 아동의 적정비율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는 앞선 보육시설장의 인터뷰에서도 교사의 적정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보육시설의 조직이 시설장, 보육교사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므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설의 인원과 보직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설장과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행정감독도 중요하다. 수요자는 민간이나 소규

21) 지역 보육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비용수준은 정부의 표준보육료 수준보다 낮았다. 즉 다수 주민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함으로써 자녀의 보육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자니 보육료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부산시는 저소득층 아동지원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체계는 주로 법정 저소득층이나 장애아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의 가정에 대한 혜택은 적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다수 일반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저출산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의 도입을 고려하는 단계에 있으며 제안은 많지만 정부는 예산과 실효성문제로 유보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06. 6. 21).

모보육시설일수록 자격과 질적 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보육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적정수의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보육을 몇 명의 적당한 교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비전문적이고 저급한 노동이라는 인식으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인력비율과 질적 차이를 재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행정적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육교사에게는 처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보육정책측면에서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바람직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정책의 인지와 관심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므로 새로운 정책신설보다는 기능과 혜택위주의 홍보전략이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보육환경은 공공보육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육수요자들은 민간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국공립이나 법인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이 확충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이 더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료가 저렴하고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보육아동들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많지는 않다. 이에 보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현재의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엄선하여 정부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민간부문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자격요건 강화가 지방정부의 책적이라면 이러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과감한 물적 지원은 당근이 될 것이다.²²⁾

22)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역시 추가적인 보육예산(재정)일 것이다. 물론 갑작스런 보육재정증가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 고려될 사안은 보육재정증가보다는 현행 지출방식의 재검토 문제이다. 보육재정지출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는 보육시설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공급자 지원방식이 주를 이루는 반면, 유럽국가들은 적극적 세액공제 등을 이용한 수요자 지원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계인정소득에 근거한 차등보육료와 만5세 무상보육료로 수요자보조를, 전체의 10%에 달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보조 등으로 공급자 보조를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본보조금이라 부르는 공급자보조금이다. 전통적 공급자 보조는 선택적 지원에 의해 경쟁력 없는 보육시설이 자동퇴출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현행 정부의 국공립시설과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는 공급자간 경쟁을 방해하는 동시에 수혜계층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편적 지원이 되고 있어 문제이다.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기본보조금 재검

넷째, 근래 증가한 맞벌이 보육수요자 측면에서는 보육실태에 대한 인식격차의 해소와 자기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보육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인식 차를 좁히면서 맞벌이 부모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영아전담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 누구는 지금도 많다고 하고, 부모들은 적다고 하는 역설적 상황은 고무적인 발견이었다. 수요자들이 진정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양식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찾기가 어려움을 뜻한다.²³⁾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 직장과 자녀는 모두 중요하고 직장생활과 사회관계에도 보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아직 여성의 일이자 책임이라는 관념이 강하여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표본의 상당수를 차지한 맞벌이 보육에서 두드러진 것은 공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영아전담, 시간연장형, 직장보육시설, 장애아 보육시설과 같은 특수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보육만족과의 관련도 많았다. 결국 바람직한 지역맞춤형 보육서비스는 곧 부모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와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보육만족의 영향요인 측면에서는 시설의 양적, 질적 수준과 다양한 시설 유형,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생활부담과 보육시설유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는 자신이 자기아이의 보육시설을 선택한다는 상황과 맞물려 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한 기본 신뢰와 만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설수준, 다양한 시설유형, 맞벌이부부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만족과 요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이슈는 수요자가 무엇을 요구하며, 정부는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보육여건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한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보육에 대한 수요조사, 수요자의 특성별 요구와 만족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담보되어야 한다. 더구나 여기서는 현재 엄마의 직업이 없더라고 소위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모의직업에 따라 특정 보육서비스가 더 요구되거나 덜 요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제

토 등 공급자 측면의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예산집행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

23) 보육담당공무원과 시설장들은 보육아동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맞선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이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보육수요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기존의 보육시설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기존의 보육시설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서비스 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수요자들이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은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충족되지 않는 보육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top-down 방식의 획일적 보육정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단위로 여성의 노동현황과 보육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지역맞춤식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달금·이영석. (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문제점 분석.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13(4): 185-216.
- 권미량·천희영. (2006). 직장보육시설의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취업모의 삶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1): 31-44.
- 김순림. (2006).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방향. 노동리뷰. 83-87.
- 김양희 외(2001). 21세기 성 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춘일. (2004). 구미 주요국에서의 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의 동향. 아동교육. 13(1): 23-61.
- 김태홍·김난주. (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영아. (2006).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어머니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55-69.
- 변용찬. (2002). 보육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보육수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7(402): 22-34.
- 서문희·이상현·임유경. (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서문희·이상현·임유경. (2001). 특수보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장애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문희·이상현. (2002). 보육사업 평가: 시설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혜섭·구미진. (2001).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사·학부모의 요구조사. 한국가족복지학. 6(1): 55-70.
- 양옥승. (2002).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7(5): 13-21.
- 유희정. (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30-5.
- _____. (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평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 _____. (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20-1.
- 유희정·강정희. (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20-12.
- _____. (2003).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0.
- 안선희. (2005).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 및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4): 311-327.
- 안지연. (1997). 중년 여성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6(2): 1-14.
- 이명조. (2001).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실태 분석 연구. 아동학회지. 22(3): 287-308.
- 이옥. (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8: 213-229.
- 이용복·이소희. (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95-113.
- 이주연·이사라. (2006).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기대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간의 지각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05-917.
- 임유경. (2002). 보육사업에서 공보육 실현의 의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7(5): 58-68.
- 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성애·김영옥. (2003).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 32: 247-273.
- 채옥희·정은미. (2004). 취업한 기혼여성의 자녀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가정과학회지*. 7(2): 81-96.
- 최목화. (2004). 대전지역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요구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93-405.
- 최보가. (2005). 장애유아 통합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부모의 요구도와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45-159.
- 최성용·권이명. (2006). 유아교육기관의 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치원과 보육기관 비교 분석. *품질경영학회지*. 34(2): 48-69.
- 표갑수. (2004). 공보육 구현을 위한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38: 219-249.
- 한유미. (2005). 스웨덴과 한국 보육시설의 질과 어머니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39-149.
- 한지혜. (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이론과 실천*. 12(1): 155-175.
- 여성가족부. (2003-2006). 보육정책팀 보도자료 3건; 보육지원팀 보육시설통계 2건.
- 부산광역시. (2004-2005). 보육사업안내서 및 여성정책사업안내서.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사립유치원 평가준거 개발 연구.
- _____. (2002). 보육정책 종합대책 수립 방안 연구 - 신보육정책 : 꿈나무플랜.
- _____. (2004). 여성통계연보.
- 한국여성연구소. (2003).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3-11.
- Bushouse, K. (1999). *The Missing Link: Collective-Choice Policy making in Nonprofit, For-Profit, and Public Child Care Centers*.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the Workshop. June 10-12.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1-143.
- Corsini, D. A., S. Wisensael & G. Caruso. (1988). Family Day Care: System Issues and Regulatory Models. *Young Children*. 46(6): 17-23.
- Endsley, R. C. & Bradbard, M. R. (1981). *Quality Day Care*.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 Goelman, Hillel & Alan Pence. (1987). Effects of Child Care,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 Victoria Day Care Research Project. in Deborah A.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Young Children: 68-82.
- Golberg, M. (1999). *Accreditation of Child Care Centers*. The Muttart Foundation: 22-27.
- Harlow, K. S. & Turner. M. J.(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s: needs assessment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3: 190-199.
- Honig, A. S. (1992). Historical Overview of Child Care. in Spodek, B. & Saracho, O. eds. *Issues in Child Care*.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9-30.
- Howes, C. (1992). Child Outcomes of Child Care Programs. in Spodek, B. & Saracho, O. eds. *Issues in Child Care*.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31-46.
- Kagan, S. & Cohen, N. (1996). *Reinventing Early Care And Education: A Vision for a Quality System*. Jossey-Bass Inc. Sanfrancisco. CA: 122-145.
- Mausser, Elizabeth H. (1993). *Is Organizational Form Important to Consumers and Mangers: An Application to the Day-Care Industry*. Doctoral Dissertation.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55-77.
- NAEYC. (2006). *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eu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URL: <http://www.naeyc.org>.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 Psychology*. 23: 537-543.
- Scarr S., Eisenberg, M. & Deater-Deckard, K. (1994). Measurement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145-155.
- Vandell, D. L., & Powers, C. (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493-500.
- Whitebook, M, Howes, C. & Phillips, D. (1989). *Who Cares? Child Care Teachers and Quality of Care in Americ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hild Care Staffing Study. Oakland. CA: Child Care Employee Project.
Witkin, B. R & Altschuld J. W.(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논문접수 2007년 8월 20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14일
- 교신저자: 우양호,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woo8425@hanmail.net,
051-510-1889

ABSTRACT

A Study on the Need Assessment of Parents for the Child Care Service in Local government

Mee-Young, Hong (Busan Women's Center)

Yang-Ho, Wo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resulting changes to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have exercised great impacts on modern families. As women enter the society working and making their voices, there has grown the importance of early educa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as well as the interest in child care policy. The parents now have more desire for child care service than ever. Thus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parents whose infants or children were taken care of by service. In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parents needs for child care service, the questionnaire items covered the area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demands of child care service, needs for child care policy, demands of dual career famili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any of them responded that the child care service fees were moderate. A huge number of them supported the idea of free education for children under five and wanted the financial aids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econd, there should be more support for development of public child care programs and more diverse facilities provided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service. It's desirable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the parents to take part in and reflect their

demands on the programs. Third, the ratio of teachers and children must go down to provide the children with equal opportunities for quality child care service. For all thos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work on their financial support methods. Fourth, the dual career families wants the child care services in facilities, and expanding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improving of the service quality.

Key Words: child care service, child care policy, need assesment, dual career families